

# 거대기업 유치 ·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 농촌 활성화

(김영일 후보)

(이춘석 후보)

(이한수 후보)

## Report 격전지 후보자들 공약 점검 - ⑦ 익산갑

4·13 제20대 총선의 본선전이 시작됐다. '선거구 재획정', '다野 구도'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이번 선거는 그만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이에 본보에서는 전북지역 10개 선거구 후보들의 공약 소개를 통해 정당한 '정책전'을 유도하고자 각 후보별 정책공약을 중심으로 선거구별 구도와 변수를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익산 갑 지역은 과거 비슷한 시기에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으로 한배를 탔던 2명의 후보가 격돌하게 돼 격전지로서 관심을 받아온 지역이다.

이 지역 후보자는 새누리당 김영일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후보, 국민당 이한수 후보, 민중연합당 전권희 후보, 무소속 황세연 후보 등 총 5명이 출마했다.

익산갑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이춘석 후보와 국민당 이한수 후보가 장군봉군의 여론조사 지지도를 보이며 박빙의 승부를 보이는 가운데 김영일 후보와 전권희 후보를 여유있게 따돌리는 듯 보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총선 후보 등록 당시 3선에 도전하는 이춘석 후보가 이한수 후보를 여유있게 따돌리는 듯 보였다.

지난 3월29일 전주MBC에서 보도된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4%p)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영일 후보 11.1%, 더민주당

이춘석 후보 43.2%, 국민당 이한수 후보 28.8%, 민중연합당 전권희 후보 1.1%, 무소속 황세연 후보 1.7%, 무응답 13.1% 등으로 이춘석 후보의 3선 도전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후 민선 4기, 5기 익산 시장을 지낸 이한수 후보가 '뚝심' 추격전을 펼친 까닭인지 지난 1일 뉴스전북취재본부가 여론조사기관인 여론리서치컨설팅에 의뢰해 보도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0%p)에 따르면 김영일 후보 11.4%, 이춘석 후보 40.6%, 이한수 후보 38.8%, 전권희 후보 0.4%, 황세연 후보 1.7%, 무응답 7.0% 등으로 이춘석 후보와 이한수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반방의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6일 전북중앙신문이 보도한 여론조사(주)유엔미리시치,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4%p)는 김영일 후보 12.0%, 이춘석 후보 32.9%, 이한수 후보 39.4%, 전권희 후보 1.9%, 황세연 후보 1.7%, 무응답 12.1% 등인 것으로 나타나 이춘석 후보와 이한수 후보가 일치타락차라 하는 판세를 보여 해당



새누리 김영일 후보



더민주 이춘석 후보



국민당 이한수 후보

**확실한 예산 확보**  
구도심 공동화 방지  
관광마케팅 등 추진

**시민참여 도시재생사업 추진**  
국가식품클러스터 예산 확대  
시민 건강 증진 시설 확충

**역세권개발 재추진**  
금마 르네상스 실현  
금강-만경강 물길 잇기

지역 선거 결과는 더욱 예측하기 힘들어졌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새누리당 김영일 후보는 ▲확실한 정부예산 확보 ▲국내 10위권 이내의 매머드급 기업 유치 ▲원광대 공과대학 이전문제 해결 ▲차별화된 도시재개발사업 등으로 구도심 공동화 방지 ▲미리시치 중심 전략적 관광 마케팅과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며 지지세를 모으고 있다. 김 후보는 "28년간 익산에서 아담이 목욕하면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능력있는 여당후보가 이제는 익산을 바꿔야 할 때"라고 말하면서 익산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더민주 이춘석 후보는 ▲성장동력 유치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가예산 유치 등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국가식품클러스터 국가예산 확대 등을

통한 농생명산업의 수도 익산 조성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및 복지시설 확대 ▲어르신을 위한 안전한 시골길 만들기 등을 익산시민에게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익산을 더 확실하게 키워놓겠다"면서 "전국 최초로 더민주에 진표를 섰던 뚝심있는 재선 의원으로서 3선에 성공해 전북도의 정치 독립을 선언하고 중진의원으로서의 저력을 보여 주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히고 있다. 국민당 이한수 후보는 ▲식품·LED기업 유치 등을 통한 10만개 일자리 창출 ▲역세권개발(복합환승센터) 재추진과 구도심 재생 추진 ▲농민유통공사 설립 등을 통한 익산 6차산업 농업·농촌 활성화 ▲금마 르네상스 사업 재추진 등을 통한 익산 500만 관광객 시대 기반 조성 ▲행복한 익산 시민을 위한 금강-만경강 물길 잇기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이 후보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준비한 20년이 있었다"면서 "앞으로의 익산을 위해 준비된 일꾼 이한수를 뽑아달라"고 익산시민에게 호소하고 있다. 민중연합당 전권희 후보는 노동자와 농민,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익산을 만들겠다고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무소속 황세연 후보도 낯은 정치 타파를 외치며 익산시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있다. /특별취재반

## 장세환 후보 선거사무소, 최형재 후보 선관위 고발

국민당 전주를 장세환 후보 선거사무소는 6일 전주시완산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최형재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장 후보측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4일 전주 MBC 라디오 및 TV가 각각 주관하는 전주시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장세환 후보를 당선시키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혐의로 최형재 후보를 고발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장 후보측은 고발장에서 "최 후보는 장 후보가 경쟁력이 떨어져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했다"는 식의 허위 사실과 비방을 반복했다. 게다가, 장 후보가 탈당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식의 근거없는 허위 사실을 추가 유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후보가 '바시던 우물'에 침을 뱉어도 되겠냐"는 식의 정제되지 못한 (저속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계속 심어주고 있다. 장 후보는 이를 바로 잡고자, '최 후보가 방송 토론회중 사파하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지만, 법적 대응하며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여 하는 수없이 최 후보를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 후보측은 "시민운동가는 도덕성이 생명인데 최근 두 번의 토론회에서 보여준 최 후보의 '똥방'만 좋고 아니면 말고 식의 상대 후보자에 대한 근거없는 허위 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은 씻을 수 없는 오명으로 남을 것"이라고 "최 후보가 최고의 청렴성과 윤리의를 요구받고 있는 국회의원의 자질을 과연 부합하는 후보인지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 김광수 후보, "국회 가면 누리과정에 예산 해결할 것"

국민당 전주갑 김광수 국회의원 후보는 6일 전주시어린이집 관계자들을 만나 누리과정에 예산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전한 뒤 '노의장 재입시절 누리과정에 예산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고민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러웠다'고 과거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김 후보는 "국회에 가면 가장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영·유아돌봄정책사업' 시행도 그에 대한 연장선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 전북 국민의당 비례 후보 "제 목 찾는 호남 만들 것"

국민당 전북출신 비례대표 후보들이 차별받는 호남이 아닌 제 목을 찾는 호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민당 박주현(비례대표 3번)·채이배(비례대표 6번)·김종로(비례대표 10번) 후보는 6일 전북도의회에서 합동 회견을 열고 "무너진 전북의 자존심을 되찾고 전북발전을 책임지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3명의 비례대표 후보 모두 군산 출신이다. 이들은 "선거패배에도 책임지지 않는 정치 행동하지 않는 양심의 신봉자는 정치를 보여 친문재인 패권세력으로는 전북의 미래를 함께 할 수 없다"면서 "김종인 대표와 친문 패권세력을 도민들이 투표로써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4월 1~2일 전북유세중 할아버지 동상앞에서 연휴효과를 극대화한 행동을 보였다. 전북도민은 표로 반드시 심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여야 중앙인사 전주 유세 지원

4·13 총선을 7일 앞둔 6일 오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전주시 완산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전북지역 후보 통합유세회를 하고 있다(왼쪽). 같은 날 오전 전주시 덕진구 모래내시장에서 열린 전북후보 합동유세회를 끝낸 김홍걸 더민주 국민통합위원장과 더민주 후보들이 손가락으로 기호 2번을 나타내고 있다(오른쪽).

## "전북도민들은 배알도 없나?"

새누리 김무성 대표, 정운천 후보 지원 유세에서

"여러분은 배알도 없나. 전북도민은 정신 차려야 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전주 효자동에서 진행된 전주를 정운천 후보(전주을) 지원 유세에서 "전천의 국가 예산 증가율은 17%, 충남은 10%인데 전북은 고작 0.7%뿐이다"면서 "(전북) 국회의원을 더민주당으로 만들어놓고 배신감을 느끼지 않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6년간 전북을 석권한 야당은 전북 발전을 위해 무엇을 했나. 지역 발전은 내팽개쳐 두고 중앙 정치에 골몰하면서 권력 싸움만 하지 않았냐"면서 더민주당에 대한 도발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때 박근혜 대

통령은 두 자리 숫자인 13.2% 총선에서 정 후보는 38%의 득표율을 달성했다. 그리고 2년 전 지방선거에서 박철근 도지사 후보는 20.4%의 지지를 받았다"며 "이제는 변화의 봄바람을 현실로 만들 때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 후보 중 단 한분이라도 당선된다면, 이는 전북 정치의 위대한 승리로 우리 정치사에 기록될 것이며 다른 지역의 5명, 10명 당선 이상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지역민의 표심을 유혹했다.

김 대표는 "야당이 한 명이라도 당선돼야 청와대, 전북에 쌓여온 숙원을 풀 수 있다"고 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재차 호소했다.

/특별취재반

## "김무성 '배알 발언' 도민 우롱"

더민주, "유권자 모욕하는 새누리에 분노"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전북도민은 배알도 없느냐"는 발언에 대해 "전북 도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더민주 김성주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전북을 얼마나 무시하던 이런 막말을 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전주를 정운천 후보 지원 유세에서 "전북 예산 증가율은 0.7%뿐인데도 국회의원을 더민주당으로 만들어놓고 배신감을 느끼지 않느냐. 여러분들은 배알도 없느냐"며 "전북도민은 정신 차려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김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전북을 위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이런

게 당당히 모르겠다"면서 "우리당이 전북 발전을 위해 노력할 때 번번이 판죽을 걸었던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전북도민을 무시하고 모욕하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그러도 잘해서 대구와 부산경제가 참에 빠졌있는 것이라며 "나라 경제를 망친 것도 모자라 이제 유권자까지 모욕하는 새누리당의 후안무치함에 분노한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표를 주면 준 대로만 믿어놓고, 표를 주지 않으면 주지 않은 대로 모욕하는 새누리당의 인하무인에 유권자 심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 "정운천, 2008년 미국쇠고기 수입 피해 사과해야"

우희종 서울대 교수 촉구

과 같이 30개월 미만 수입조건은 국제기준도 아니며, 비교학적 수입조건인 △국민들의 요구와 같이 30개월 미만 수입하면 한국은 WTO에 피소당해 막대한 피해를 입음. △주변국이 한국보다 엄격한 조건으로 수입타결하면 즉시 미국과 재협상할 것

(일간지 광고) 등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우 교수는 그러나 미국쇠고기 수입 타결 후 주변국 수입 타결 현황을 예로 들며 "2008년도 논란은 단순한 미국쇠고기 안전성 문제가 아니라 수입조건으로서의 미국 쇠고기 안전성이 문제였다"며 "2008년도 한국정부는 OIE의 최소조건을 충분조건으로 왜곡 선전하며 비정상 수입조건을 합

리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운천 후보가 공식 사과해야 할 사안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 OIE의 국제기준을 왜곡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WTO에 피소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는 거짓 내용으로 국민을 헐뜯었으며, 미국과의 타결은 노무현 정부에 의한 것이고 단지 집행한 것"이라는 허위 주장 등에 "과거 무책임했던 발언과 잘못된 행동으로 국민에게 입혔던 피해에 대해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특별취재반